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가 올해 5회째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행사 규모나 성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기, 예향 맞나요? 초라한 '아트광주'

“예향 맞습니까. 벌써 3회째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성장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31일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4 (art : gwangju : 14)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대구 지역 화랑 대표의 열악한 광주 미술시장 기반을 지적했다.

대구에서 34년째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부산(아트스 부산)은 3회째지만 이미 소문이 나서 갤러리들이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광주는 선두 주자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서울 지역 갤러리 대표도 “컬렉터는 없고, 사진 찍으려고 찾아오는 학생들만 있다”며 “예향 광주는 이제 옛말인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 행사를 치르고 있는 아트광주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나 부산에 비해 많은 국·시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성과는 두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행사를 치른 부산국제아트페어 ‘아트쇼 부산’은 올해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매출액은 8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만3000여 명, 51억 원에 비해 각각 20%, 60%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2013대구아트페어에도 모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매출액도 2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열린 아트광주13의 경우는 입장객은 대구와 비슷한 2만여 명이지만 매출액은 절반 가량인 12억 원에 그쳤다. 그나마 아트광주12 보다는 2억 원 가량 늘었지만 아트광주11 보다는

광주국제아트페어 참가 화랑들 컬렉터 없는 열악한 행사 ‘한숨’ 부산·대구 아트페어 급성장에도 국·시비 지원 많은 광주는 퇴보 지역기업 후원·화랑 노력 절실

3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작 아트광주의 경우는 대구나 부산에 비해 가장 많은 국·시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자생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9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광주는 해마다 3억 원의 국·시비가 투입돼 왔고, 내년에는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포함해 모두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 해마다 광주에 비해 1억 원 가량 적은 1억9000만 원 수준의 국·시비가 투입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올해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국·시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성적표는 두 지역에 비해 초라한 상황이다. 정작 아트광주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는 첫화부터 대구화랑협회 주축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 대구화랑협회에 소속된 34곳의 화랑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화랑들의 ‘축제’를 꾸미고 있는 셈이다.

광주는 올해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주관 단체가 3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내년에는 주관단체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지역 화랑들조차도 정작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보다는 다른 이들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생각뿐이다. 이 때문에 아트광주의 ‘큰손’인 광주시립미술관에 크게 기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외면도 아트광주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아트광주의 후원금은 지난해 3분의 1수준인 1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은 (주)아트부산과 벡스코가 올해까지 3회째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지역 기업 등이 초기 자본금을 투자해 아트페어를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을 만든 것이 행사를 성공으로 이끈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랑들 스스로의 노력과 기업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또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 특강을 통해 투자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컬렉터’를 키워내는 것도 광주시의 역할이다.

경기도 광주 화랑 관계자는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 스스로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오프닝 테이프를 끊기 위해 찾아오는 기업인들이 아니라 작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광주 지역 기업인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왕재의 신명난 타악 ‘경토리’

(서울·경기지방 음악적 특징)

4일 빛고을국악전수관서 공연

‘신명난 타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타악연주자 이왕재씨의 네번째 타악 발표회가 오는 4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매주 목요일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초청 무대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경토리’다. ‘토리’는 지방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음악적특징을 이르는 말이다. 모두 5개 토리로 나뉘며 이중 서울·경기 지방 음악을 ‘경토리’라고 한다. 이번 무대는 경토리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리듬이 살아있는 타악 중심 곡을 위주로 레퍼토리를 짰다.

첫 곡은 경기 무속 음악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장단을 타악 중심으로 짰 ‘경기도당굿’이다. 이어 경기 굿판이나 승무 반주 음악으로 자주 연주되는 ‘경기대풍류’를 피리, 대금, 아쟁과 함께 선보이며 고사 덕담



이왕재

‘경기 비나리’를 모두 북과 함께 들려준다. 그밖에 고사 덕담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 비나리’와 신명난 ‘웃다리 사물놀이’를 선사한다.

김광속(장·모듬북·장구), 오영미(피리), 조수희(대금), 김선재(아쟁), 이일규(북)씨가 협연한다.

무형문화제 제17호 우도농악 설장구 이수자로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대표, 광주시립국악관련 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중이다. 전서 초대, 문의 062-350-45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병창+팝페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2 세 번째

4일 기독간호대학 오웬기념각

양림동의 역사문화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2’ 세 번째 공연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가 오는 4일 오후 7시30분 기독간호대학교 오웬기념각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전통 가야금 병창과 현대적인 팝페라가 ‘사랑’을 테마로 만나는 독특한 공연이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순수’는 오래전 양림동에서 시작된 광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간 충돌과 생성을, 남도 전통의 가야금병창과 서구음악인 팝

페라의 만남을 통해 동일하게 시도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문명자, 김해진, 서고운이 춘향가 중 ‘속대머리’와 ‘사랑가’,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병창으로 선보이고, 아쟁 류세운, 대금 김승호, 고수 김용희 등이 동참한다.

백성영(테너), 장진호(테너), 정주영(테너), 구충길(바리톤)로 구성된 4인조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는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의 듀엣곡 ‘퍼펙스 러브’, 영화 ‘시스터 액트’의 ‘오 해피데이’,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러브’ 등 대중들에게 인지도 높은 팝 넘버들을 선보인다.

무료 공연. 문의 062-651-097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4인조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

강진아트홀 ‘메밀꽃, 운수좋은 날, 그리고 봄봄’

내일 단편소설 애니메이션 상영

강진아트홀은 3일 오후 7시 소공연장에서 한국 단편소설 애니메이션 ‘메밀꽃, 운수좋은 날, 그리고 봄봄’을 상영한다.

지난 8월 개봉한 이 작품은 1세기 전에 나온 단편문학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봄·봄’은 혼례를 차일피일 미루는 장인어른 때문에 3년 반째 머슴처럼 일하고 있는 데릴사위 ‘나’가

자신의 처로 제격이라고 생각하는 ‘점순’의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해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살포시 드러내는 ‘점순’의 행동은 ‘나’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만든다.

‘운수 좋은 날’은 한 가정을 두 여가에 짙어진 아버지인 인력거꾼 ‘김첨지’의 이야기다. ‘메밀꽃 필 무렵’ 속 달빛 쏟아지는 메밀꽃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번 작품의 명장면이다. 무료. 문의 061-430-397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p>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837-19 두암에덴빌영정문영 이름, 감정,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진로상담 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아담카페식당 동구천변로 405-101 천변지리산주유소에서콜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p>	<p>두걸음직업소개소 북구 두암동 824-2번지청사거리부근 근로자 수시모집 (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 대표 조창욱 ☎062)263-3862</p>	<p>광남기업 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정입구 사시, 유리 조립식판넬 대표 이경규 ☎062)263-0036</p>
<p>등촌 동구 충장로1가4번지 사브사브전문점 대표 김복현 ☎062)227-7734</p>	<p>김용만국수집 동구 금남로1가19 (YMCA1층) 맛국수,콩국수 김용만국수전문옛날국수 대표 정인순 ☎062)236-3533</p>	<p>떡임이아구찜 동구 금남로3가13-4 (제일은행뒷골목) 아구찜, 백반, 낙지백숙 청국장, 전통월빙식품 대표 홍안수 ☎062)233-1919</p>	<p>우먼로드 중흥3동 286-36번지 (동부시정입구중흥3동사무소아래) 혼수전문, 이발, 커트, 전문매장 ☎062)524-8737</p>	<p>고전방 동구 공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p>		
<p>TV스토리 신안동 481-38번지 소형에서대형까지최고의품질 검증없는가격특가판매50%세일1년무상A/S ☎010)5540-4568</p>	<p>우리웃빛고을 동구 공동62-3번지 한복맞춤전문 대표 신진아 ☎062)227-6730</p>	<p>풍류문화전당점 동구 남동 문화전당길 23번도로 6-7 (다이아모텔앞) 소주, 호프, 사계 ☎062)228-4009</p>	<p>강항(울금)국밥 동구 예술의길 19-7 머리고기국밥, 순대국밥, 새끼국밥 임흥순대, 곱창전골 대표 장수화 ☎062)233-8778~9</p>	<p>T&H양복점 동구 불로동121번지 (평화식당옆) 맞춤정장 맞춤셔츠 ☎062)233-0506</p>	<p>커피홀릭 동구 충장로 3가 11번지 이포유정문건너편2층 직접볶아신선한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p>		
<p>규방 동구 충장로1가4번지 (지하) 돈가스,모듬가스 생태탕,순두부 대표 임현숙 ☎062)227-3716</p>	<p>우리밀빵 동구 금남지하상가 E동51호 (분수대옆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p>	<p>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빌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뚝탕, 오리장어탕 ☎062)401-5253</p>	<p>미정 동구 금남로 2가 (구)동구청뒤 (옛날구미항) 계절생선회,일식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p>	<p>낙지한마당 동구 대의동 69-3 (동부경찰서앞) 연포탕, 낙지볶음 낙지비빔밥, 산낙지 ☎062)225-117</p>	<p>세정아울렛무크(상설점) 서구 치평동 1326 세정아울렛 2층 258호 10~20% 추가할인(일부품목제외) 디자인 및 제품품질향상, 사은품증정 ☎062)370-9258</p>		